

주일에배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자녀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7월 7일 (제1261호)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인식의 변화

7월 마지막 주에 청소년 수련회가 기도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예전에는 넓은 중앙 공원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지만, 지금 그곳은 오지한 장로 기념 식당으로 바뀌어서 마땅한 행사 공간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위기는 더 좋은 기회를 낳는 법, 이참에 아이들 행사 공간을 더 넓게, 더 멋지게 만들기로 작정하고 천여 평의 땅에 보도블럭을 깔고, 그 옆 바위를 활용하여 폭포를 만드는 등 대공사를 감행했다.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 즈음, 나는 손녀 예랑이에게 전반적인 평을 부탁했다. 손녀가 아니라 시각디자인 박사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그러자 예랑이가 조심스럽게 '지금 작업공간과 주변에 이질감이 있다'며 이것저것 등을 지적했다. 그러자 기도원 식구들은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라는 얼굴들이다. 그들 눈에는 예랑이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딸 같은 아이로 보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제 갓 기도원에 들어온 장로는 "그리고 보니 그러네요. 박사님,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란다. 그 장로는 예랑이가 시각디자이너로 보인 것이다.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내 친구들의 반응이 딱 이랬었다. "네가 목사야? 그렇게 잘 놀고, 말을 마시던 네가?" 했었다. 그들은 지난 시절의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목사인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니 사람들이 수근거린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나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막 6:2~3).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예수가 메시야라고? 그게 말이 돼?" 할 수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눅 4:24).

한번 박힌 인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도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수 없기 때문이다. 멋진 미래를 위해 고정된 인식을 버리고, 인식의 전환, 변화를 꾀하자.

베네수엘라 목회자 세미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일로였던 가운데 흑인 오바마(B. H. Obama)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건이 세계 뉴스로 도배되던 지난 2008년, 우리는 베네수엘라(Venezuela)의 수도 카라카스(Caracas)와 바리나스(Barinas)라는 두 도시에서 집회를 가졌다. 베네수엘라 집회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미국 애리조나(Arizona)주 피닉스(Phoenix)에서 온 디에고(Diego Moreno) 목사가 2007년 11월, 멕시코(Mexico) 티쿨(Ticul)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이후 멕시코 헤르모시요(Hermosillo) 집회 등 중남미 각 집회의 길을 열어오다가 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아무튼 카라카스, 바리나스 및 바르키시메토(Barquisimeto) 집회를 통해 루이스 목사와 바르키시메토의 세베리노(Severino) 목사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세베리노 목사의 이름을 목사님은 리빙스턴(Livingstone)으로 바꾸어주셨다. 그런데 꼭 1년 후인 2009년 10월, 놀랍게도 리빙스턴 목사는 베네수엘라 목회자 연합회 임원 10여 명과 함께 연락도 없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가를 건져달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초석 목사

목사님을 주강사로 초빙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대산유국으로 부국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차베스(Chavez) 정권 때부터 견지해온 사회주의 노선을 고집하며 미국과의 적대적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서로 왕래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그로 인해 항상 중남미 집회에 동행하는 미국의 김성자 전도사가 이번 세미나에는 동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이틀간 일정으로

카스의 루이스(Luis) 목사에게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카라카스 집회를 배설한 예수스 페레스(Jesus Perez) 목사는 목사님의 속소를 특급호텔의 스위트룸으로 잡아놓고는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승리의 광장으로 인도하여 2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이 장소에서 대대적인 전도집회를 열기 원한다고 말했었다. 그 장소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셨던 목사님은 이후 100만 집회의 꿈을 늘 말씀하시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이루어진 역사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다시 14년 만에 베네수엘라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는 시점에 목사님을 주강사로 초청한 과정을 반추해보면 분명한

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베네수엘라 목회자 세미나와 집회를 열 계획을 밝히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단상에 올라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을 빌려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2010년,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전역뿐 아니라 중남미 각국에서 모여든 만여 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대형 세미나가 열렸고, 이 세미나는 중남미 전역에 생중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집회가 열릴 때마다 목사님은 루이스 목사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인도하셨고, 루이스 목사와는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되었으며, 현재 루이스 목사는 베네수엘라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교단 총회장이 되었다. 바로 그가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진행되고, 세미나를 마치면 루이스 목사가 배설하는 집회, 그리고 리더 세미나가 계획되어있다. 현재로서는 대략 5일 동안 세미나와 집회가 계속될 예정이지만, 현지 사정에 따라 추가 요청이 있으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긴 여정이다. 미국을 경유하면 비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한 상황인지라 유럽 도시를 거쳐 들어간다. 우크라이나(Ukraine) 전쟁으로 기존 러시아(Russia) 노선을 이용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더 오래 걸릴 예정이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세미나와 집회에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나기를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닮으!

한은택 목사

베네수엘라 목회자세미나 및 집회

7월 2일(화)~12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수1:1~9)



두려움은 내 인생을 쯤먹는 암적 존재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

40년 전, 목사 안수를 받던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오늘의 이초석 목사와 예수중심교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가끔 40년 세월을 뒤돌아보면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믿지 않은 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다’라고 한 것 때문에 안수한 교단에서 제명되었고, 그 후로 수 없는 누명과 모함이 저를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을 돌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감행했습니다. 난관이 많았지요. 장소를 계약한 곳에서 갑자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적도 있고, 집회 장소에 최루탄을 던졌고, 강패들이 찾아와 칼을 들고 협박했고, 집회 장소의 전기를 끊겠다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200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해외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 입국하면 죽인다는 협박 사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되고 입국금지 당한 일, 의사 면허 없이 병을 고친다는 광고를 낸 것이 발단이 되어 키르기스스탄에서 재판에 회부되고 결국 추방된 일, KGB에 끌려간 사건, 한밤중 러시아 호텔 방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일, 호텔 테러 위협사건, 에스토니아 자동차전복, 칠레 고속도로 차 고장 사고, 멕시코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한 경비행기의 8시간 곡예 비행... 그러나 역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음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레 미지의 세계에 매력을 느껴 지구촌을 메주 밟듯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말만 해놓고 안 도와주고, 안 보살피고, 안 챙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입니까?

세상의 어느 신도 전지전능하지 않고,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세상 부모는 자식을 내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주

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시121:4).

그럼에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력가입니까? 재력가입니까? 권세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찌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시146:3~4).

원수들이요? 당연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롬12:19)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세상의 핍박과 모

함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나를 듣고

사 랫 의 획 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갈

이 쯤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 같이 별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지 리라”(사51:7~8)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이뤄지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절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6).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이건 기도할 문제이지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삼상17:47)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 나지 않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이 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 법,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통일 되는 날이 옵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니 전염병이 두렵습니

까? 그런 걱정도 붙들어두십시오. “흑암 중에 행하는 열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앞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시91:6~7)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과감히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평소보다 칠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담대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악

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은 사자를 베게 삼고 누워 잤고, 사

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도비야와 산발랏의 획방과 협박에도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느4:14).

세상의 모든 풍파가 두렵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사43:2~3).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사43:1).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해를 끼치겠습니까? 수영장에서 아빠가 먼저 물에 들어가 아이더러 뛰어내리라고, 아빠가 지켜준다

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겁먹고 두려워서 못 뛰어내리면 절대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면 여름철 시원한 물속에서 물장구를 칠 수 있고, 수영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중심의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도전과 모험을 즐기십시오.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십시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움에도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딤후1:7). 마귀는 우리 상황을 전기가 나가 깜깜하듯 그렇게 만들어 지레 겁먹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벧전5:8).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성령충만에 있고, 성령충만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혹 마귀가 전선을 끊어도 우리가 자가발전할 수 있으니 어둠이 엄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 보세요. 세상이 마냥 두려웠던 베드로가 성령충만을 입은 후에 달라졌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동력이 성령충만 아닙니까? 저 역시 성령충만하기에 두려움 없이 다시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눅12:5). 그걸 모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탄이 이러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사51:12~13).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는 법

지난 컬럼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투자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 곧 경제적 독립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만으로는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시간에 대한 통제가 바로 경제 독립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독립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수입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최대한 자신의 수입보다 적게 지출해야 하며 불필요한 소비로 인해 빚지는 것을 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우야 하지요.

장기적으로 부를 쌓는 것은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투자수익보다는 저축규모와 더 관계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장기적으로 미래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버는 돈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버는 돈 중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하느냐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부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수입에서 필요한 것을 다 지출하고 남은 저축의 누적 금액입니다. 많은 소득 없이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전혀 저축하지 않고는 부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저축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삶의 여러 어려움에 대비한 일종의 대비책(헤지)이지만, 또 우리에게 선택권과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다가올 수도 있는 매우 귀중한 최고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인 자유와 시간에 대한 통제입니다.

인쇄소 사업에 성공하여 42세에 은퇴할 수 있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가능한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 경제적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부자로 죽기보다는 쓸모 있게 살기를 원했고, 평생 자신의 부를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프랭클린은 “부자가 되는 길은 시장에 가는 길만큼이나 평범하다. 이는 주로 근면과 검소함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된다. 즉, 시간도 돈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이 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근면과 검소함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백만 달러를 버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의 백만 달러를 버는 여정은 처음 저축한 돈으로 시작되며, 그다음 저축, 또 그다음 저축으로 이어지면서 백만 달러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요셉의 저축법을 익히 배웠습니다. 창세기 41장, 47장을 반복해서 읽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내게 쓴소리가 약입니다

작년, 교통사고가 나서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귀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당한 교통사고가 귀신 때문이라 생각해본 적 없었던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년 전 신문을 통해 ‘2018년에 났던 교통사고를,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였더니 영적 회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했었기 때문이지요. 모든 안 좋은 일의 원인이 ‘귀신’ 때문임을 망각한 저를 깨닫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몇 주 전, 여러 일들로 인해 번뇌하는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울감까지 느끼게 되자 결국 주님 앞에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주님, 도대체 뭐가 문제지요? 기도도 해보고, 이겨내려고 노력해봐도 나아지질 않아요.” 한참을 껴끼어 울던 제게 들려오는 총회장 목사님의 음성, “귀신 때문이다!” 순간 저는 울음을 그치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폐일언하고 원인은 나를 죽이려는 ‘귀신’ 때문인데, 인간적인 생각에 휩싸여 원망과 자학의 나날을 보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귀

신 때문임을 인정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자, 짓눌렸던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기쁨이 차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망하게 하는 마귀의 종개들이다. 오늘도 쫓고 내일도 귀신을 쫓아라!” 40년 동안 변함없이 외쳐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음에도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생각했던 저였음을 자백합니다.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는 것도, 마음이 괴로워 상담받는 것도 죄는 아니겠습니

다만, 우리는 각색 병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의 원인이 바로 ‘귀신’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귀신을 쫓고 내일도 쫓으라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귀신을 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반드시 영육 간에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 일에는 완전히하여지리라 하라”(눅13:32).

김진실 사모

결단하는 신앙생활

성경은 신앙생활을 결혼에 비유한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 신앙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 뿐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 사랑만으로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가고, 다른 곳으로 눈과 마음이 쏠려 마침내 이런저런 이유들로 헤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식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라’, ‘어떤 단점이 보여도 품으리라’, ‘눈에 띄운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사랑하라’.

신앙생활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사자 성어가 있는데 바로 초지일관(初志一貫), 항구여일(恒久如一)이다.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목사님 또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결단함으로 마지막까지 이어가길 원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목사님을 본받아 결단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4).

이은성 생도



:: 생명의 말씀 ::

첫 단추의 중요성

한 통의 상담 전화가 왔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어느 구도자 청년이었다. 온통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차는 거였다. 이해가 안 되어 여러 문제를 앞에서 고전하고 있단다. 그는 유튜브를 보며 이런저런 잡다한 성경 지식을 습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만들고 있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에게도 전화를 걸어 보았고,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다. 그저 믿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권했단다.

그러다가 유튜브를 통해 우리 교회를 알게 되어 전화했다.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본인의 선택에 넘기며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해주었다. ‘믿으려 말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라.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이다. 인간의 유한한 이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타협 없는 선포이기에, 창조를 믿든지, 진화를 믿든지 두 믿음 앞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어

떤 걸 믿기로 작정하여 첫 단추를 끼우는가가 마지막 단추의 방향도 가능하단다.’고 대답해주고 전화를 마무리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자리가 없어진다. 창세기 첫 장부터 틀어지면, 계시록의 단추는 끼울 자리가 없어진다. 인간이 설 자리도 없어진다. 예수 실컷 믿다가, “진짜 천국이 있어?” 하고 되물게 되는 거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계명의 진실성 여부를 자기 판단으로 직접 경험해보려고 했다. 검증하고 나서야 믿으려 했다. 하나님과 사탄의 두 진술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판단하여,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결국, 뱀의 유혹이 총체적으로 사기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 원죄를 공유하는 우리도 참 많이 닮았다. 이해되고 검증되면 믿고, 안 그러면 제거하려 한다. 헬라인은 이해를 구하고, 유대인은 검증을 구한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미심쩍어 육체로 마치려는 다른 복음을 사도바울은 저주했다. 그래서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며 축복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은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다.

송직화 목사

:: 성도 간증 ::

임계점을 넘으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M1 소총 200발을 사격하는데 한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격을 못하여 중대장으로부터 사격 고문관 집합, 쪼그려 꿇기, 앉아 일어서 엎드려뻗쳐, 팔굽혀펴기 등, 정신 차리라고 여러 차례 열차려를 받았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군 복무를 마치면 고향에서 힘든 농사일이 싫어 어려운 경찰관 시험법률조항 및 책 15권을 36개월간 처음부터 끝까지 예습 복습으로 전부 암기하여 높은 경쟁을 뚫고 우수한 성적으로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군을 제대하였습니다.

경찰은 매년 전·후반기 비간부 3.8구경 권총 25m 실탄 25발로 정례 사격을 하는데, 역시나 총에 대한 두려움으로 20점 저 사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문이 하달되어 전 직원들로부터 비웃음과 놀림을 당하고 벽제 경찰수련원, 인천부평경찰대학에서 특별히 여러 차례 재교육을 받고 경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매 경찰 간부 시험 필수과목인 사격점수를 받기 위하여 목동 실내 사격장에서 권총 실탄 1발에 2천 원씩 주고 1년간 시설에서 교육했으나 사격 0점. 표적을 전혀 맞히지 못하자 박종길(전 문제부 2차관) 실장은, “김 부장은 백 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돌연변이 같은 사람으로 더 못 가르치겠다.”며 사격장 퇴출 통보를 하였고, 나는 “아이고~~ 실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여 간신히 허락받고, 실장님 가르치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3년간 사격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경찰 3.8 권총 정례 사격 때 25발 전부 100점 표적에 들어가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많은 동료 경찰관은 누가 대리 사격해주었다고 믿지 않았고, 옆에서 함께 표지판을 본 사격 고문관마저도 어떻게 100점 받았냐고 했습니다. 그 후 전국 경찰 권총 사격 마스터 대회 당

선, 경찰 최고 총잡이로 사격 교관이 되었고,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 “사격은 왼발 25각도 벌려 반발 앞으로 나와 숨을 들이마신 후 1/3 숨을 내쉬고 호흡을 멈춘 상태로 가슴쇠와 가슴자에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며 천천히 방아쇠를 당겨라.”고 가르쳤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사격 고문관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꼴찌에서 1등으로 인정받고 명예로운 경찰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년 전, 서울교회 장애인 안내부장을 맡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한 해가 돼라’는 목사님의 슬로건을 붙잡고, 내일은 내 권한 밖으로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사격에 집중하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처럼 하루 4시간 기도로 입술 주변이 달아 터지고 헛바닥이 갈라지며 이빨이 흔들리는 임계점을 넘어 기도와 노력을 두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회원 17명, 250명 전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말씀이 내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남은 생도 이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여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김수현 장로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 성경에서 배운다 ::

신앙의 메타인지

공부를 잘하는 상위 1% 학생들의 비밀을 찾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제작이 무산될 위기를 한번 겪었는데, 이유인즉 상위 1%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아무리 설문지와 인터뷰를 해봐도 딱히 하나로 집결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집안의 재력, 지능, 조기교육 등 간단한 공통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런 흔한 이유들이 모두의 공통점은 아니었던 거죠. 고심 끝에 심리학박사를 찾아간 제작진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위 1% 아이들이 갖는 비밀은 ‘메타인지’, 즉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에 있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그들의 공통점으로 ‘메타인지’를 꼽았고, 지금도 많은 교육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비단 교육에만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첫째, 내

가 누구인가? 둘째,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셋째, 내가 아는 것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력감과 의심을 심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라는 말씀을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일’에도 함께 힘써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경륜을 알고 싶어 예배 때 선포될 말씀을 기대하며 나

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아는 것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이렇게 타인을 성장시킬 때 더욱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절 보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훨씬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며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란 사인이다
문제가 없다면 해결의 기쁨도 없다
문제 속에 기적이 있다.
기도하라!
-봉우